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A P R
2 0 1 6
통권 237 호
6,000 원

크리스탈, 빅토리아, 엠버, 루나!

SPACE GIRLS

보석보다 찬란한 완전체
에프엑스

SEOUL SOUND SCENE

서울의 뮤직 크리에이터 48인
돌아온 록 밴드 시대
풍경의 소리 기록자들

PLUS

한예슬의 뒷모습
나쁜 페미니스트, 록산 게이
미리 보는 애플 신세계
여자들의 우정, '워맨스'
다재다능한 챔프 물의 핑크 뷰티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이상한 의사
360도 패션쇼 체험기

Music moments

당대 가장 매력적인 여자
뮤지션에 대한 <보그>식 오마주
AMY, PATTI, BLONDIE,
COURTNEY, SINÉAD...

2100493213920801
월간 보그(VOGUE)
₩6,000 01
영도사(잡지)-목동점
2016 03 19
www.bandinlunis.com



표현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자들의 우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자가 여자의 뮤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브로맨스가 아니라 워맨스의 시대라는 가설은 꽤 급진적인 발전이다.

VOGUE CULTURE

- 246 **삶의 멜로디** 세상과 운명에 맞서던 세기의 팝스 파탈 마타하리의 위대한 인생이 무대에 오른다. 마타하리를 2016년으로 불러온 건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다.
- 252 **직업인으로서의 걸그룹** 야구만큼이나 걸그룹에 관심이 많은 젊은 시인 서효인. 그가 '만년 대리' 같은 몇몇 걸그룹의 무대를 보며 이들의 성공, 아니 생존을 응원하는 이유.
- 258 **TOP BAND 10** 애들 장난 같은 팝으로 뒤덮였던 음악 시장에서 록 음악이 다시 80년대의 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돌아온 록 밴드의 시대, 지금 당장 들어봐야 할 록 밴드 10.
- 260 **AGAIN, LADY SPIRIT** 누군가 '디올 정신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디올 서울 부티크에서 열리는 <Lady Dior As Seen By Seoul>전에 가보라 추천하겠다. 특히 네 명의 한국 아티스트들이 부활시킨 레이디 디올은 우아한 여성성에만 머물지 않았던 디올의 예술적 유전자를 서울에 각인시킨다.
- 268 **어느 나쁜 페미니스트의 고백**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례없는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수많은 매체와 패션지의 찬사를 받은 책 <나쁜 페미니스트>. 저자 룩산 게이를 만났다.
- 270 **취향의 계급**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옳았다. 지금 이 시대는 취향으로 계급을 나누려는 계급사회다.
- 274 **하퍼 리를 찾아서** 어느 겨울 새벽, 1960년 소설 <앵무새 죽이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하퍼 리는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조용히 눈을

- 276 감았다.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은 쓸쓸한 죽음이었다. 초판본 마주 보기 서점가에 등장한 초판 복간본의 인기가 상상치 않다. 예뻐서 샀을 뿐인데 그 안에 작가와 시대의 사연이 담겨 있다.
- 278 **여성 셰프 열전**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셰프는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어느 여성 셰프의 반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최고가 된 글로벌 여성 셰프 여덟 명을 소개한다.
- 280 **컬처 직구 시대** 재미없는 코미디 치워! 시시한 미디어 비켜! 가전제품처럼 콘텐츠도 '직구'하는 시대다.



A two-part photograph. The top part is a close-up of a person's hands, wearing a white glove, applying red and black beads to a white quilted bag. The bottom part shows a woman in a black hijab sitting at a long table in a workshop, working on a similar beaded bag. The workshop has shelves with materials and a red lantern hanging from the ceiling.

HWANG RAN 뉴욕과 서울을 자

'Eternal Muse'

A quilted, silver-colored handbag with a large, curved handle, heavily embellished with clusters of red and black berries. The bag is set against a dark background.

철마다 곳곳에서 매화에 관한 전시가 줄을 잇고 있지만, 황란의 매화가 더 특별한 건 소재 탓이 크다. 단추라는 재료는 인간의 존재가 갖는 일상성에 관한 비유로 다가온다. 이번 작품은 단추를 망치로 두드려 ABS 표면에 부착하는 반복적이고 명상적인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누구의 옷에나 있지만, 단추가 하나 떨어지거나 실밥이 달랑달랑 붙어 있



'Korean Female'

통용되는 노동은 세상의 보폭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메이드 인> 시리즈의 '극도로' 의도적인 비효율적 노동과도 대척에 있다. 이완은 그 차이가 디

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죠. 모든 건 사라지고 나면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 그 평범한 진리가 제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존재와 부재, 실상과 허상, 현재적 삶으로서의 영원하지 않는 시간이 제겐 매우 중요해요.”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까지 이어질 레이디 디올의 영원성에 황란 작가가 해석한 찰나의 시간성이 없으면서 작품은 또 다른 의미를 탄생시킨다. 황란의 매화는 그 자체로 여성의 역사가 되고자 한 디올의 브랜드 철학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디올이 시대를 초월해 여성의 가장 큰 아름다움을 여성성에 둔 점이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디올은 5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가령 뉴룩 같은 스타일로 패션 혁명을 일으켰지요. 이번 작업을 통해 아티스트로서도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제목 'Eternal Muse'에는 아티스트가 바라보는 레이디 디올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본인에 대한 바람까지 모두 담겨 있다.

레이디 디올을 든 여인

LEE WAN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젊은 예술가' 리스트를 독점하고 있는 이완은 예의 단발머리가 아닌 말끔한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그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보스 수트를 사 입고 직접 금융맨이 되는 프로젝트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다. 이전에는 스스로 '이상한 짓이라 표현한 <메이드 인>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는 3년째 12개국을 돌아다니며 한 끼의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다. 가령 대만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설탕을 뺀다 종류해 만들어오고, 중국의 깊은 사찰에 가서 마룻바닥의 나무를 가져와 일회용 젓가락을 만드는 식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제게 오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많아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한 거죠. 물건과 함께 돈이 돌아간다는 걸 알았고, 금융자본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여정에서 국가 간 권력 이동의 세 패러다임, 다양한 노동문제, 이분화된 사회구조가 어슬렁 드러났다. 이완의 풍자 정신이 레이디 디올과 어떻게 만날지 궁금한 건 당연했다.

“디올 가방은 매우 반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생산되고 있어요. ‘싼 가격, 좋은 품질’이라는 보통의 공식과는 정반대로, 일일이 소량으로 만들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팔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입니다.” 디올을 비롯한 패션 하우스에서

올의 철학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런 정신으로 탄생한 물건이 과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완은 참여 대신 관찰의 방법을 택했다.

'Korean Female(한국 여자)'이라는 제목의 사진 속에는 어디든 있을 법한, 그런 면에서 지극히 '한국적'으로 조악한 변화가 한가운데 젊은 여자가 서 있다. “한국에서는 표면적인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서글프긴 하지만, 디올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쟁력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디올의 계층적 아이콘을 소비하는 거죠. 비록 브랜드의 정신과 반할지언정, 이것이 솔직하고 동시대적인 한국의 사회,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완은 '보편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기술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다. 인물뿐 아니라 거리 네온사인과 쓰레기봉투에까지 초점을 맞춘 것. 그러므로 원근법을 무시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한껏 빼입고 레이디 디올을 애지중지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가방을 욕망하게 만든 이곳이기도 하다. 레이디 디올을 둘러싼 소비 혹은 소유에 대한 통찰은 예술적인 것이 곧 사회적인 것이며, 사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는 잠언을 떠오르게 한다.



Vogue Korea 2016 April Issue

Ran Hwang:
The Beauty of Invisibility

Ran Hwang has been enthusiastically working around the globe, frequently commuting between New York and Seoul. She has established a studio in Yeondeungpo in Seoul.

For primary materials, she uses a numerous buttons, beads, nails and pins as her paint, considering the wall as her canvas. The images she renders – blossoms, birds, Buddhas, urns, etc. – evoke the Asian aesthetic and an exotic sensation simultaneously.

Among her vast range of creations, plum blossoms have been an iconic motif ever since she started her art practice in New York in 1997. To Hwang, plum blossoms represent sensitivity and she states “Plum blossoms look charmingly simple and plain yet elegant and humble compared to cherry blossoms that are splendid yet showy. The branches of plum trees feature dynamic angles and movement. They don’t sprout as many flowers as cherry trees. Their calmness and subtle beauty resemble the Korean spirit and sentiment. It might be the reason that the ancients chose the plum flower as one of the *‘Four Gentlemen Plants’*.” Hwang’s contemporary version of plum blossoms appear elegantly laid on a translucent *Lady Dior*, with which the company unveils the classic, graceful image.

Hwang continues "Through my work, I convey my enduring examination of the chasm between visibility and invisibility. The chasm where all visible things in the world conceal their non-visible aspects. Audiences are commonly intrigued by beauty of an outward nature in the artwork, but they do not know about the life of the artist hidden behind a masterpiece – her pain, sadness, and solitude. I didn’t appreciate life until I nearly died in my early 30s. Since then, I’ve sublimated the

value of existence through my artwork. The reason that plum blossoms are extraordinarily arresting to me is that their life is fleeting and ephemeral disappearing even while still blossoming.”

Although various exhibitions about the plum flowers follow every season, Hwang’s plum blossoms seem the most remarkable because of her distinctive use of materials - buttons. Buttons are her metaphorical medium representing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This work was created through the repetitive and meditative process of affixing the buttons onto the ABS surface by hammering a number of pins, which hold the buttons. “We never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button before we notice its disappearance from our clothes. This basic perception begins my work----we discover the meaning of our existence after its disappearance. My practice is all about nurturing the notion of presence and absence, reality and illusion, life and mortality in contemporaneous life.

The *Lady Dior*, which has been evolving with its undying legacy from the past into the present, will last into the unknown future, and was given new life by Hwang’s interpretation time within the transient moment. Hwang’s *Plum Blossoms* represents the brand philosophy of *Lady Dior*, whose stated goal has been to make a statement in woman’s history of all times. “Dior has weighed in heavily on the beauty of women and femininity. This perspective plays similarly with my conception. Especially the signature style of Dior in 1950’s, for instance the ‘newlook style’ was a revolution in fashion. Through executing this project, I was truly stimulated in my role as an artist.” The title, “*Eternal Muse*” applies not only to Hwang’s artistic interpretation but also the audiences’ desire, and moreover, to her aspiration towards the *Lady Dior*.